



중국학부 소식

News

● 중국 교육부 주최, 제21회 한국 대학생 중국어대회, 강예림 금상 수상

지난 5월 24일 중국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제21회 한국 대학생 중국어대회에서 중국학부 4학년 강예림 학생이 대학부 금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한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 중국어대회로 중국 교육부상을 최고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8월경 중국 교육부 주관으로 중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학생 중국어대회에 본 대회 수상자가 한국대표 선수로 파견되고 있다. 금년 3월 28일부터 시작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진출자들은 5월 22일 온라인으로 이야기 원고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실시간 본선 심사를 치렀다. 또한 사전에 제출한 중국문화 기능공연 동영상 심사 점수를 더해 최종 수상자를 가리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쳤다. 금년 대회 주제는 One World, One Family(天下一家)였는데, 강예림 학생은 본선에서 중국 고전 '예기'에 기록된 산문 일부를 낭송하면서, 대회 주제인 천하일가(天下一家)를 한복을 입고서 붓글씨로 쓰는 퍼포먼스를 보여서 한중 양국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4학년인 강예림 학생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여 동시통역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진로를 소개했다. 부산외대 심지언 교수는 이번 대회 수상을 계기로 통·번역가를 희망하는 중국학부 재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어학 실력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입체적 통번역 수업이 효과를 나타낸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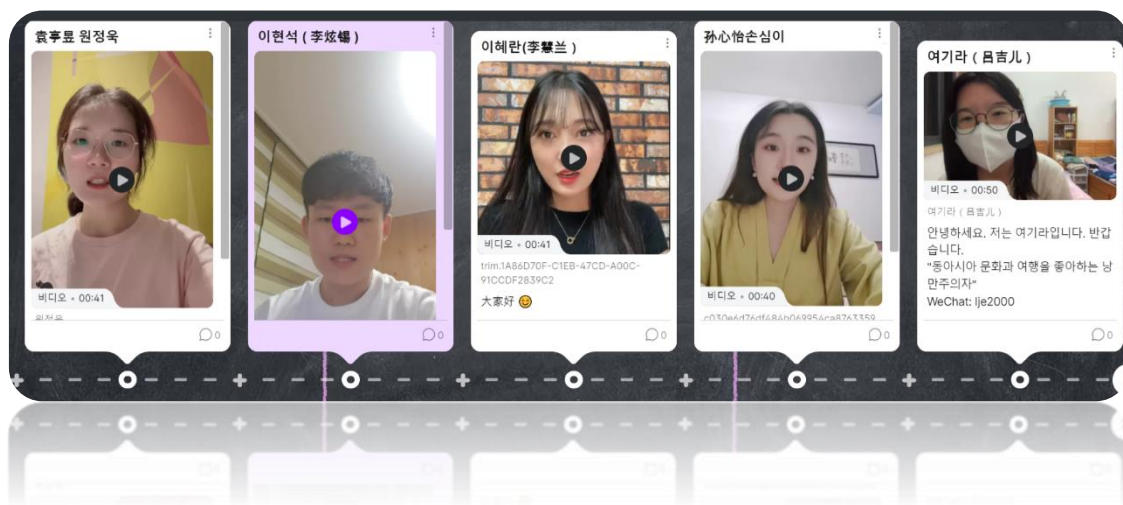


● 펜데믹 시대 더욱 빛을 발하는 탄뎀학습법

 이효영 교수

‘탄뎀 학습법’은 20세기 유럽에서 유행하여 보편화된 학습법으로 두 명의 모국어 화자가 한 조를 이루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외국어 학습 방법입니다. 두 개의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 간에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언어교육을 넘어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자기주도학습 역량,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우고, 상호문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산외대 중국학부는 2009년 국내에서 최초로 탄뎀학습법을 도입하여 중국, 대만 등 중화권 학생들과의 언어학습, 상호문화이해, 국제 교류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실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면대면과 온라인 탄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뎀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전환에도 탄뎀 수업은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ZOOM)이나 메타버스, 위챗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출국 길이 막히고, 언어 실습이 제한되었던 시기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현지 상해외대와 상해삼달대 학생들과의 탄뎀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탄뎀을 통해 양국의 학생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학습’, ‘한중 문화 비교’, ‘한국과 중국문화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00여 명의 중국 대학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상해외대 한국어과 3학년 학생은 “탄뎀 수업을 통해 한국 친구를 사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 탄뎀 파트너 덕분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부산외대에 꼭 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외대 중국학부의 탄뎀 수업은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과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 모두에게 언어 실습의 기회와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중국어를 학습하면서 문화체험과 실습, 현지 친구까지 사귀고 싶다면 부산외대 탄뎀 수업을 경험해 보세요!



부산외대 중국학부 온라인 탄뎀 수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QNG6fAJdO0>



● 사*현. 중국학부 2022년 졸업생, 중국공상은행 부산지점



中国工商银行

Q: 특별히 해당 회사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A: 중국계 은행인만큼, 중국어가 중요하게 생각되어 중국어 자기소개서 및 중국어 면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인 친구에게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고, 중국어 면접 관련 서적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SNS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금융업계 취업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맞춤형 입사 준비에 노력했습니다.

Q: 4년간 학과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나 활동은?

A: 저는 교내 학생기숙사와 기획예산팀에서 학생 인턴을 했었는데, 이를 통해 회사 내의 기본적인 업무 스킬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했던 점은 회사에 지원할 때 큰 강점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자원봉사 및 인턴경력, 어학자격증 등 대학생들이 가지려 하는 '스펙'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나요?

A: 교내 인턴, HSK자격, 다양한 봉사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HSK를 통해서도 중국어 실력을, 인턴 및 봉사경력은 제 입사지원서와 면접 때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만약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A: 다양한 부복수 전공을 선택해서 많은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1학년이 된다면, 토익 및 HSK 등의 어학자격증을 우선하여 꾸준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는 3·4학년 때 인턴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힘들게 어학자격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부족했다고 느꼈던 대외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Q: 다른 곳에 지원했다가 실패한 곳이 있다면 그 원인은?

A: 중국계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전화인터뷰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중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야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3분의 순간이 아쉬웠지만, 덕분에 중국어 면접의 중요성과 저의 약점을 깨닫고 공상은행 면접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무기' 3가지만 골라준다면?

A: 확고한 지원동기, 데이터, 자기객관화 능력을 고르겠습니다. 저의 특징, 강점, 약점 등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객관화하였고 이것들을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내가 지원하는 곳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준비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지원동기 및 중국공상은행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고 준비한대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Q: 해당 회사의 입사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인지?

A: 성공 요인은 앞서 언급한 '무기 3가지' 이외에, 성격과 경험, 준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학업에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어 경험한 일(봉사활동, 인턴 등)들은 입사 때 저의 역량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조건 많은 경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점을 느꼈는지 면접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회사에게 처음으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맞춤법, 글씨체)도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후배들도 면접에서 진실된 본인만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만 야시장 문화



따이허언 교수

대만 야시장은 일찍이 구도심(타이베이시 따다오청)에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포장마차들이 점차 모여들면서 시장을 형성하였다. 이후 야시장은 기존 정기 시장이 점차 증가하자 장이 서는 날짜를 바꾸게 되었다. 오늘날 도시 변두리와 시골 지역에 유행하는 유동 야시장은 1970년대 후반, 교통이 발달한 후에야 나타난 현상이다. 대만의 노동밀집형, 소자본 위주의 제조업이 1960년대에 발전한 것이 야시장 출현의 배경이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으로 야기된 대만 수출 급락과 반품된 수출 제품의 국내시장 유입은 야시장을 저가품 판매 중심지로 만들었다. 오늘날 야시장은 여전히 해외 제조업체의 하자품 유통 채널일 뿐만 아니라, 대만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소형 제조공장의 판매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공장 종사자들의 수많은 생계를 책임지는 주역이기도 하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가장 먼저 야시장이 생긴 때는 당나라 때였고, 송대 이후 성숙하고 안정되었다. 야시장은 주로 옛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며, 사찰 입구에서도 시작하여 현대적 대형 야시장으로 변모해왔다. 지금의 야시장은 이전과는 달리 먹거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옷도 팔고 또 많은 놀거리가 있다. 주요 야시장 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상권에 위치한 야시장에는 자가 또는 임차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영업하며, 노점상들을 유치하기도 한다. 관광 야시장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라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야시장이다. 이동 야시장은 특정일에 영업하며, 참여하는 상인들은 각기 다른 날짜에 다른 특정 지점으로 단체 이동하며 장사한다.

야시장은 이미 대만 국민들의 생활 일부가 되었다. 거의 모든 도시에 야시장이 존재한다. 대만은 야시장을 통해 정신적·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있다. 야시장에는 음식, 쇼핑, 오락이 내재되어 있으며, 대만 각지의 특색있는 현지 문화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항상 대만 인기 관광명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을 다채로운 대만 야시장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자 한다.



타이베이 화서가 관광 야시장. © Jason Goh



● 인터넷 쇼핑 채팅 용어



허로천 교수

오늘날 인터넷쇼핑은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중국에서 제일 큰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는 연매출 세계 1위 기업이다. 알리바바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들 중 타오바오(淘宝)와 티몰(天猫)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다. 이곳에는 왕왕(旺旺)이라는 실시간 채팅 기능이 있다. 왕왕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판매자와 연락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문제 발생시 판매자와 즉시 소통할 수 있다. 실제 '왕왕'에서 쓰이는 인터넷 쇼핑 채팅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欢迎光临亲, 有什么可以帮助您的吗?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것은 왕왕에서 판매자들이 손님한테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亲'은 인터넷쇼핑 고객에 대한 호칭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亲亲'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货比三家'(3곳 이상 다른 곳 상품들과 비교하고 구매)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 전에 판매자에게 많은 질문을 한 뒤 구입을 결정을 한다. '亲'이라는 호칭을 통해 판매자들은 고객과의 거리감을 줄여나간다.

如果亲对我们的商品满意的话, 可以马上拍下来. (저희 상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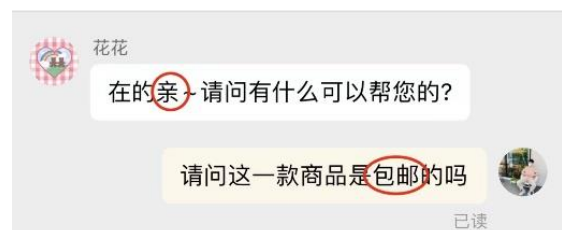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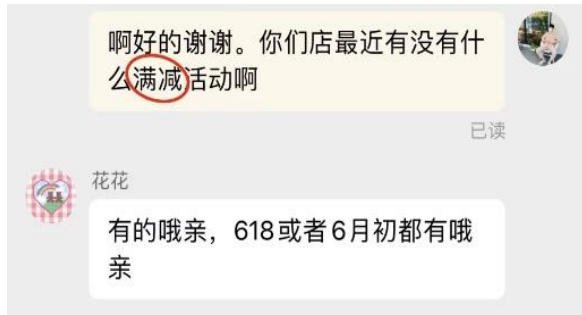
여기서 '拍'의 본래의 뜻은 '손바닥으로 치다' 인데, 인터넷쇼핑에서는 구매하다는 의미이다. 竞拍(경매)의 拍에서 유래되었다.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많은 상품들이 경매 방식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商品包邮吗? (가격이 택배비 포함인가요) / 你们有什么满减活动吗? (구매 한도액 할인 있나요)

이 두 질문은 고객들이 판매자에게 문의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한다. 包邮는 배송비 포함을 의미한다.

满减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일부 할인 해주는 혜택을 가르킨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가게들은 자기들만의 할인 혜택이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용어들을 잊지 말고 꼭 '왕왕'에서 사용해 보자.



● 외교부 주최, 제2회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장려상 수상

외교부에서 4월 29일부터 개최한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에 지원한 중국학부 3학년 배혜민, 김나연 학생이 영상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외교부가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소개하여 안전한 여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본 공모전은 영사조력제도, 여행경보제도 홍보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에서 배혜민, 김나연 학생은 안전한 해외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외교부 정보 플랫폼과 여행시 챙기면 유용한 준비물을 소개하며 안전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알려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채널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설정하여 만든 영상에서 본인과 지인들이 실제 겪었던 외국인 혐오 및 리스크 사례를 통해 누구나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처방안으로는 상담이 가능한 영사콜센터 내 카카오톡 상담,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하 중국학부장은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곧 시작될 여름방학 내 재학생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해당 영상을 중국학부 유튜브 채널에 공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1년 11월에 시작된 외교부 영사콜센터 내 위챗상담서비스가 중화권 여행시 유용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뉴스레터 공지사항

Notice

●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어 핸드북 증정

북경어언대학출판사에서 2022년 1월에 발행한 <冬奥会交际汉语口袋书> 1권씩 증정해 드립니다. 우측 QR코드 접속하면 녹음파일 확인도 가능함.

● 중국학부 인스타그램 계정 (bufs_china) 오픈

중국학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소식과 사진을 이제 인스타에서도 만나보세요.

● 중국학부 홈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안내

우리 학부에 관한 최신 정보는 아래 QR 코드에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